

못자리

6월



제 1713호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사목국 못자리 담당 전화번호 054)858-3114~5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otzary>



못자리 친구들, 이번 달에 소개할 성지는 '전주교구와 광주대교구'의 성지들이에요.

'전동성당' -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철신 암브로시오가 순교한 곳

'치명자산 성지' - 신유박해 때 순교한 호남의 사도라고 불리는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와 그의 가족 6위가 합장된 순교자 묘가 있는 곳

'나주 순교자 기념성당' - 기해박해 때 순교한 이춘화 베드로를 비롯한 네 분의 순교자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무덤 형태의 경당

'영광 순교자 기념성당' - 영광 출신 이화백과 복산리 오씨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성당

순교자들의 삶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전주와 광주로 순례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복음

6월 1일 주님 승천 대축일 <루카 24,46-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6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47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49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50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51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52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53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신부님의 주일학교 시절



Fr.윤여홍 시몬

못자리 친구들, 봄이 찾아왔어요.
신부님의 주일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추억이 참 많아요.
학생 미사 후 친구들과 간식도 나눠 먹고 축구도 하며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친구들과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있나요?
못자리 친구들이 주일학교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길
신부님이 기도할게요~

우 리 들 이 야 기 ★



★용상동 성당 4학년 권연우 레지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다들 것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 성령
속의 팔복처럼 언제나
예수님을 찬미하며
주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용상동 성당 5학년 지민준 미카엘

오늘의 복음

6월 8일 성령 강림 대축일 <요한 20,19-23>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답3 퀴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3가지를 찾아보세요.

퍼즐

가로세로

베	이	바	환	호	만	물	성	소	무
사	드	오	예	루	살	렘	진	실	궁
도	요	로	자	비	영	광	이	리	화
삼	한	성	부	열	매	영	승	치	성
돌	위	령	마	회	영	축	천	하	늘
맹	구	일	군	개	상	성	복	권	력
이	성	사	체	중	처	체	혈	세	한
반	고	문	지	스	승	행	복	지	진
죽	석	강	복	식	부	평	화	실	혜
원	천	마	사	수	국	호	이	천	우

-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루카 24,47>
-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 "○○을 받아라" <요한 20,22>
- 삼위일체 중 하나.
- 그분 곧 ○○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 16,13>
-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루카 9,16>
- 행복을 빌거나 또는 그 행복.
-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 16,18>
- 넓고 평평한 큰 돌 또는 사물, 사상, 기틀 따위가 아주 견고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늘의 복음

6월 15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요한 16,12-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2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이달의 생활성가

죽음을 이긴



©유튜브 - Hymns Catholic

6월 1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구원 사업을 완수하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기리는 날이지요.
그날을 생각하며 노래를 함께 들어보아요.

우 리 들 이 야 기 ★



★가흥동 성당 4학년 나태을 체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진리안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하느님께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가흥동 성당 5학년 박시우 프란치스코

오늘의 복음

6월 22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루카 9,11~17>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11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12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13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4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16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성경 도시

소돔과 고모라(Sodom and Gomorrah)

- 창세기에서 소개된 도시들로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죄인들이었음. [창세 13,10~13]
-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과 죄악으로 두 도시를 멸망시키려 하자 아브라함이 의인들도 있으니 멸망시키지 않기를 간청함. [창세 18, 23-33]
- 주님께서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망시키시고 이 때 롯의 아내는 달아나다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됨. [창세 19, 24]
- 실제 존재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학자들은 사해 남부의 모압 평원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밥 에드-드라(Bab edh-Dhra, 소돔)와 메이라(Numeira, 고모라)로 추정)



희망의 순례자들



하망동 성당



용상동 성당 단락골 성지



점촌동 성당

오늘의 복음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마태 16,13-19>

13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15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16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18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가톨릭 성인(聖人) 이야기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6월 21일)

성 알로이시오는 청소년들의 주보성인이예요.
알로이시오는 자신에게서 발견한 결점들(분노, 조금증, 불만 등)을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신중하고 분별력 있던 알로이시오는 신학을 공부할 때,
언제나 절제 있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도 남의 말을 결코 중단하는 일이 없었지요.

어느 날 도시 전체에 흑사병이 퍼졌는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병자를 돌보다가 그만 전염되어
23세의 나이에 하느님 품에 가셨습니다.

알로이시오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할 것입니다."



다른 그림 찾기



↓ 다른 곳도 그림 찾으세요.





<1주간> : 주님 승천 대축일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적어보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시며, 손을 드시어 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장소는 어디일까요?

- ① 예루살렘 ② 갈릴래아 ③ 티베리아스 ④ 산티아고

<2주간> : 성령 강림 대축일

1. 오늘 복음 말씀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 ①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② 제자들은 로마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③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④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오늘 복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 ① 당신의 두 손과 ()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② “()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③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해 주면 그가 ()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모자리 카페에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3주간> :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의 영이 오시면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중 맞는 단어를 찾아보아요.

- ① 영광 ② 사랑 ③ 진리 ④ 기쁨

2. 오늘 복음을 잘 읽고,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적어보아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4주간>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1. 오늘 복음에 나오는 문장과 같은 문장을 고르세요.

- ①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②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빵 여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다.
③ 사실 장정만도 칠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④ 이날 음식이 모자라 군중들은 배불리 먹지 못하였다.

2. 복음 속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O,X를 선택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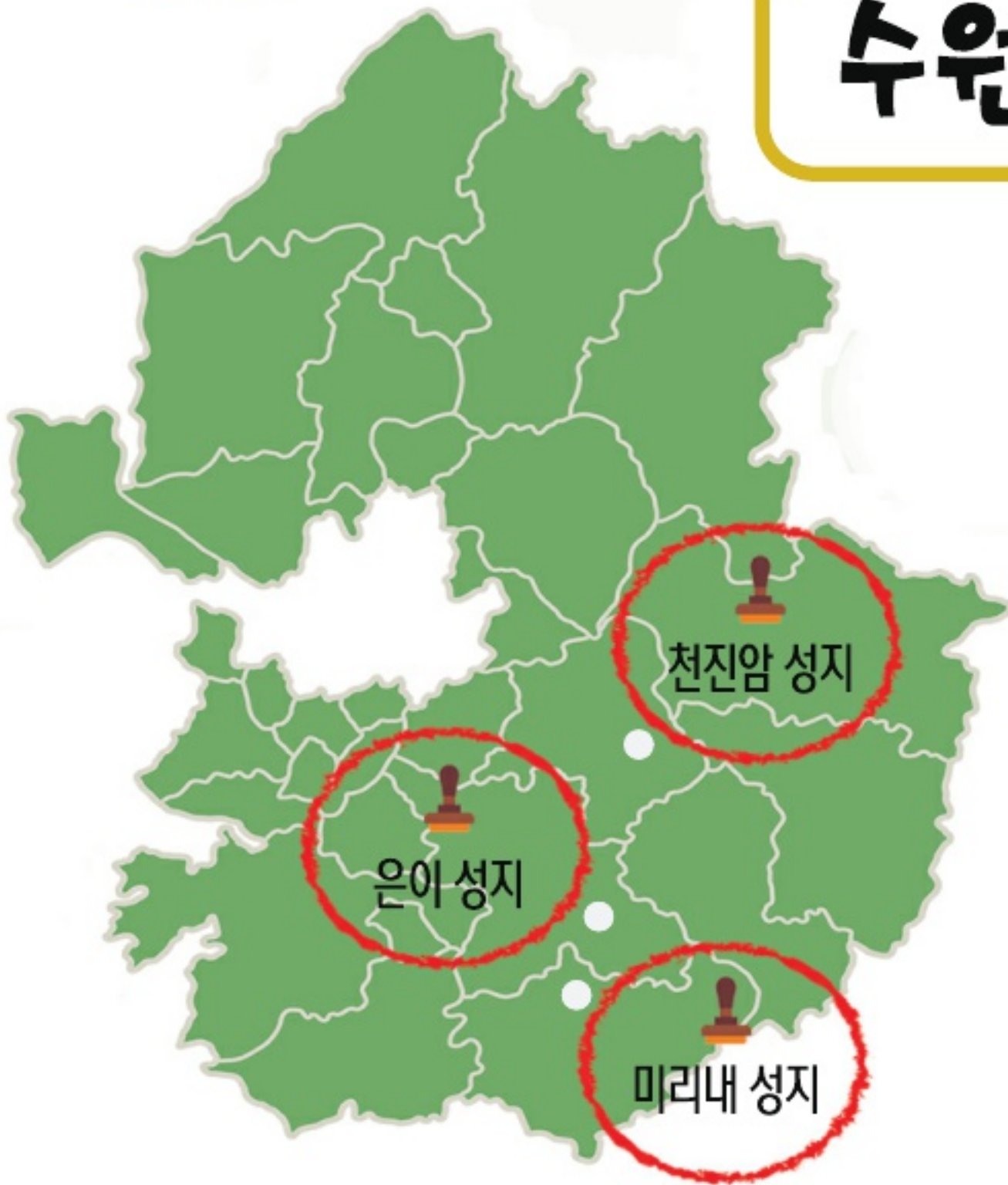
- ①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O/X)
②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다 (O/X)
③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군중을 스무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셨다. (O/X)



성지순례 스탬프북



수원교구



대전교구



전주교구



광주대교구



당첨자

4월 13일 정답자

북 면 송건우 송채현

4월 20일 정답자

갈전 마티아 김정규

4월 27일 정답자

남성동 홍선우 홍민우

5월 4일 정답자

용상동 김주안 김리안



알림판

◆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레오 14세 교황님의 첫 인사말씀)

새로운 교황님이 선출되셨어요!!

성 베드로의 267번째 후계자가 되신

레오 14세 교황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제 267대 교황 레오 14세

◆ 7월 못자리 "우리들 이야기" 순서

- 7월 6일 : 개운동 성당

- 7월 20일 : 영 덕 성당

(※ 원고는 6월 3일까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